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 실태 및 육구에 관한 비교 연구

김영란 · 이수애 · 권규영

이 연구는 농촌과 도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의 실태와 육구에 대한 지역비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M郡과 도서지역인 W郡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712명에게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 모두 TV시청이 가장 주요한 여가활동이며, 화투, 낮잠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화투는 농촌에서, 운동과 춤은 도서지역에서 보다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도서지역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여가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었으며,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도 농촌 노인에 비해 길었다. 셋째, 도서지역 노인이 농촌 노인보다 더 많은 돈을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지역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대체로 시간부족, 돈 부족, 교통불편, 정보부족, 시설부족 및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만족도는 도서지역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 돈, 건강, 정보 부족과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여섯째, 농촌 노인과 도서지역 노인 모두 건강관련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농촌 노인의 경우 안마기, 도서지역 노인의 경우는 운동기구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여가의 장소로는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 모두 마을회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농촌보다는 도서지역에 더 많은 여가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농촌과 도서지역을 망라하여 건강관련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육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보다 예방적 차원의 노인복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셋째, 이상의 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력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국민 노인 여가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보다 세분화된 지역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삶이 연구주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농촌 노인, 도서지역 노인, 노인의 여가실태, 노인의 여가육구, 노인의 여가만족도, 지역연구

김영란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제1저자)

이수애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권규영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gregory@mokpo.ac.kr(교신저자)

1. 서론

농어촌과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크기와 도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정의되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 자연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 그리고 정태적 지역정체성이라는 이미지를 수반하는 지역이다(양철호, 2007: 15). 모든 학문적 개념들을 제외하고 순박하게, 그리고 널리 알려진 의미로 보자면, 농어촌은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시골' 혹은 '지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형화된 이미지로 남아 있다. 도시는 모든 활동의 근거지이며 중심지이고 발전된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취와 성공의 땅'이라고 이해되는 반면, 시골은 결핍, 낙후, 주변화, 나아가 공동화에 이르는 뒤쳐진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실패와 절망의 땅'이라고 이해된다. 이런 차이는 이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실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의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지방혁신도시를 선정하고,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 경제, 정치, 교육, 복지 모두에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연달아 시행하였다(김영란, 2006: 18-19). 나아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정체성을 포함하는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에 기초한 문화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구혜영, 2004: 253).

이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가운데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던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더욱이 이 연구

는 농촌과 도서지역이라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상존하는 두 지역의 거주민 중 여가시간이 가장 많고, 또 그렇게 많은 여가시간을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확보하게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농어촌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00년에는 14.7%, 2005년에는 18.6%로 높아진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6%에서 5.5%, 그리고 7.2%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권중돈, 2007: 31). 나아가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인 2020년에는 농촌인구의 62.8%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진철, 2007: 13면). 한편, 2005년 통계청의 생명표와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서 1960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22.5세가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남자 74.8세, 여자 81.5세로 평균 77.9세에 이르며, 2015년부터는 80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권중돈, 2007: 27).

물론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게 정년퇴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 '일'이외의 시간으로 남겨진 '여가시간'이 수명연장과 더불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노인과는 달리 농어촌 노인들은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하고, 거주 지역 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 여가 불평등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교육이나 보건의료와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적 함의를 가진 주요한 주제라고 사료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왔던 농촌과 도서지역의 구별 없는 지역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의 주요한 가설은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실태 및 욕구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기존의 노인여가관련 연구들에서는 '지역'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경우(김희년, 2005; 김진

육, 2006 참고)는 있었지만 농촌과 도서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정부에서 잇달아 발표한 「농도서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1)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도서지역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¹⁾(2004. 3)에서도 농촌과 도서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서도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결정하여 도서지역을 농촌이나 산촌과 다름 아니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연구자들은 농촌과 도서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도시의 시각에서는 이 두 지역이 도시와 반대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하겠지만 농촌은 육지로서, 도서지역은 바다로서 갖는 생태환경의 본질적인 차이와 농업과 어업의 생산 및 노동방식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람의 사고와 생활방식,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게 생성·발전해 왔기 때문에 초래된 이질성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김준, 2007: 66). 특히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교통과 기상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곳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에서 육지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 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로서 도출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하는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도서지역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3조에 농산도서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산도서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양철호, 2007: 40).

2.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여가의 중요성

Harvey(1978: 102, 박경일, 2007: 116에서 재인용)는 사회적 욕구에 음식, 주택, 의료, 교육 등과 더불어 오락적 기회를 포함하였고, 사회 복지가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오락적 기회, 즉 여가는 점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욕구 중 하나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시대 보다 커지고 있고, 여가에 따른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다른 사회적 요소들처럼 여가에 대해서도 혜택의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노인, 여성, 청소년 집단이 여전히 여가의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면서 여가는 일면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특히 여가를 향유하는 소수 노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여가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나향진, 2003: 36).

노년기는 역할의 변화, 축소 또는 상실로 인해 이전의 생애시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지만,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여가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무료함'으로 변질되면서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권중돈(2007: 209)은 노인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고독, 소외, 만성적 무료함,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직업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노인들에게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이 여가라고 본다면, 노인들이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낸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을 행복하게 마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은 생의 마감에 앞서 남은 인생의 삶의 질 확보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노인여가정책은 노인 일자리정책과 함께 노인복지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과 도서지역이 과거처럼 지역이나 가정에서 노인을 보살피는 공동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고령자끼리 어떻게 하든지 자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히구마, 2007: 71),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노인복지가 노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여가시간을 통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여가 관련 문헌에서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가 노후생활의 적응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서병숙, 1994; 원영희, 2003; 나향진, 2003; 모선희, 2004 등 참고).

허준수(2006: 136)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노화현상을 늦추어주고, 체력의 저하현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체육활동을 통해 면역기능 향상, 산소소모능력 감소완화, 심혈관질환의 발생 감소, 뇌기능의 활성화 등 여가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형수, 2006: 75).

결국 노후의 여가생활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신감,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것이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과 연계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립되어 노인이 지역사회 내 통합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모선희, 2006: 41)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는 노인문제의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노인여가활동 실태

가. 여가활동 내용

앞서 언급한 노인 여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20여 년 동안 생산된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결과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장인협·최성재, 1987; 이가옥 외, 1994; 임춘식, 1997; 박재간, 1997; 홍성희, 1998 등 참고). 또한 최근 발표된 김진욱(2006: 168)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참여·자원봉사 시간은 매우 적었고, 이에 투입하는 시간이 너무 낮아(3.7분) 하위집단별로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까지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현재 노년세대는 적극적 여가활동을 실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TV시청²⁾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대로 매우 낮으며,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정경희, 2005: 59).

지역연구 중에서, 충북지역 60세 이상 단독노인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남녀 285명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분석한 조명희(1998: 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들이 소일활동이나 가정지향적 활동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취미·자기개발활동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장성군 노인여가조사에서도 ‘특별한 일 없이 보낸다’는 응답이 29.2%, ‘이웃

2) 곽효문(2002: 42)은 텔레비전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세대끼리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 역할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인문제와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면서 적극적으로 텔레비전을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인이나 친구를 만나면서' 지낸다는 응답이 25.7%,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응답이 24.7%로 나타났으며, 사회단체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77.8%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농촌노인들은 대체로 집안에서 소일하면서 소극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성남, 2004: 72). 한편,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소재 도서지역의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동네사람과 담소 86.5%, 라디오/TV 시청 76.2%, 이웃방문 46.8%, 낮잠자기 46.8%, 휴식 37.3%, 텃밭 가꾸기 36.5%, 자녀집 방문 34.9% 등을 차지하고 나머지 취미와 자기개발과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를 넘지 못하였다(김영란 외, 2005: 347).

물론 위와 같은 현상이 농촌이나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서울지역 조사 결과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 거주 여성 재가노인 238명의 여가생활참여실태를 분석한 유영주·김순기(2000)는 조사 대상노인들이 주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신문·책읽기 같은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편이며, 동창회나 친목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의 집이나 친구·친척집 방문하기 같은 가족지향적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서울지역에서 남녀 노인 1,371명의 여가의식을 분석한 나향진(2003: 43)의 연구에서도 '라디오/TV시청'이 가장 많은 33.9%로 나타났고, '음악, 미술, 서예 등 예술활동'이 30.3%, '등산, 낚시, 산책 등 운동'이 15.5%로 나타나, 세 가지 유형이 전체 여가활동의 80%를 차지한 반면, 자원봉사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그 수도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나. 여가활동 장애요인

이처럼 과거와 현재, 지역을 막론하고 시·공간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동배(2000: 158)는 대체로의 여가프로그램이 노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과 계

임 위주일 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권중돈(2007: 75)은 현세대의 노인들은 의식주 해결과 가족 부양에 전념 온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여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 예비사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으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노인이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가에 대한 낮은 인식, 여가 교육 기회의 제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등의 제약이 노인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로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김해지역 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노인 대상으로 노후 여가생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한 김희년(2005)은 농촌노인은 여가장애요인을 신체적 약화(29.5%), 여가시설 부족(25.0%), 재정적 어려움(15.9%)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노인은 재정적 어려움(27.5%), 없음(26.1%), 신체적 약화(17.4%)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여가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재정적 문제가 노인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반면, 농촌의 경우는 생애 동안 긴 노동과 의료서비스의 제약에서 초래된 건강문제 및 여가시설의 부족이 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희년과 정미숙(2004: 263)이 진해시 거주 남녀노인 250명의 여가생활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노인들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빈곤, 건강약화 등의 신체적 특성, 소외감과 외로움 등의 부정적 심리 특성 등이 여가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

며, 여가에 대한 인식 및 여가정보의 부족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약도 실제로 노인여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가사를 돌보느라 바빠서, 또는 돈의 부족, 여가 시설 및 설비 부족(조완규, 1994)이 여가를 열악하게 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장애요소는 농촌지역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연령집단의 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이는 '일'과 '가족'과 관련된 이중노동부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진욱, 2006: 169).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연구에서는 '여가비용의 부족'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가장소의 부족'이 63.6%, '여가시간의 부족'이 45.8% 등으로 응답(다중응답임)하였다. 이 외에 질적 심층면접에서는 건강문제가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함께 발견되었다(김영란 외, 2005: 348, 349).

이상의 결과들은 최성재·장인협(2006)이 여가활동참여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건강문제, 비용의 부족, 장소나 시설부족, 정보나 지식 부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여가활동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체로 경제적 요인(경제적 사정이 좋은 노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긴다), 건강상태(좋은 건강상태와 기동력을 갖춘 노인들이 여가활동의 폭이 넓고 참여빈도를 높게 유지한다), 생활환경(가까이 친족이 있거나 이웃에 노인이 많거나 노인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여가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활동 범위의 폭도 넓어진다),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중년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노인들이 노년기에도 그것을 유지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서병숙, 199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하면,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이 조사대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여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여가프로그램 제공시설에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들과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김희년·정미숙, 2004: 279). 특히 여가활동 만족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 내에서의 소외감과 여가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고, 여가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희년·정미숙, 2004: 280). 결국 가족 내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어 여가활동이 노인소외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소요되는 여가비용을 지불할 만한 경제능력이 넉넉하지 않다면,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유영주·김순기(2000: 81-83)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들의 성장 또는 독립한 상태, 퇴직, 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 정도, 노인의 개인생활목표의 다양성, 주변의 생활환경을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권중돈(2007: 211)은 퇴직할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의 건강, 경제,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 정도 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퇴직이 곧 여가활동 참여도를 높여주는 촉진요인이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도서지역의 노인의 경우에서도 특별히 퇴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의 여가활동 영향정도를 밝히는 것은 무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tchley(1980, 최성재·장인협, 2006: 277-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활동의 다양성은 목표가 다양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생활목표의 다양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여가만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조사가 주로 체육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강원도, 서울, 경기도 거주 만 60세 이상 남녀노인 683명을 분석한 이상덕(2005: 169)은 스포츠여가의 경우 비스포츠여가보다 여가만족이나 생활만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포츠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여가활동의 만족감 뿐 아니라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고독감, 생활만족도 등에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노인, 혹은 동적 여가활동 참여노인이 다른 활동 참여노인, 혹은 정적 여가활동 참여노인에 비해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을 발표하였다(김귀봉·박주영, 2000; 임인수, 2001; 마석렬, 2001; 민경훈·정훈교·서연태, 2001; 김양례, 2005 등 참고). 이외에도 치료레크리에이션 임상사례에 대한 사전·후조사를 실시한 김기봉·문제선(2003)은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태도인식의 향상과 여가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라. 여가활동 욕구

최근에 나타난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의 변화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여가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려고 하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여가를 보다 바람직하게 보내고자하는 욕구이다. 전자는 과거에 누렸던 가부장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가사 결정권에서의 소외, 가정 내에서 무용지물 시 되고 있는 노인의 위치와 관련 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노인들은 집안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여가시간을 메울 만한 가정 외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노인 개인의 경제력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 노인들과 교육수준이 높아 퇴직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보다 유용한 여가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김동배, 2000: 145-6). 이는 여가욕구수준과 자아존중감, 건강, 자기개발활동과 스포츠 및 건강활동 참여가 각각 정적관계를 갖는다는 김성연·박미선(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주장이다.

실제로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여가에 대한 조사에서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57.3%로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 23.9%보다 배 정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노인들에게 여가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란 외, 2005: 349).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관광/온천이 67.8%, 채소밭 가꾸기가 13.3%, 노래방이 15.6%, 자녀방문이 24.4%로 나타났으며, 면접에서는 “무조건 재미있게 놀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김영란 외, 2005: 198-9) 여가활동 내용측면에서 욕구가 다양하지 못하며,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향진(2003: 47-8)의 서울지역 노인들의 여가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여가프로그램으로 오락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40.0%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습프로그램이 약 25%, 죽음대비 교육에는 약 3.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락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프로그램과 시사상식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서 노인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한 김희년·정미숙(2004: 276-8)은 조사대상노인들 중 38.2%가 노년기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친지와 의 교류를 선택하였고, 그 밖에 운동·산책 등의 건강증진활동이 16.2%, 취미·오락 활동이 12.7%, 새로운 지식습득 및 교양학습활동이 11.8%, 지역사회봉사활동이 7.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프로그램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체조와 스포츠댄스 같은 활동적인 여가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빈곤층 노인들은 노인의료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건강프로그램에 비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노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과 도서지역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를 이해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있다. 앞서 농과 도서지역이란 도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시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농촌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이며, 도서지역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이라는 단순 구분은 반농반어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농촌은 도서 즉, 섬지역이 아닌 육지지역으로 그리고 도서지역은 육지가 아닌 섬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농촌은 도서지역에 비해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그리고 도서지역은 섬이어서 문화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두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욕구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농촌지역의 경우 전라남도 M郡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그리고

도서지역지역의 경우 전라남도 W郡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에서 표집되었다. M郡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며, W郡은 군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이 주로 섬으로 구성된 대표적 도서지역지역이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인구 사회적 특성, 여가활동 실태 및 욕구 등을 측정하는 문항과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포함하는 설문지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연구자들에 의해 사전 훈련된 조사원들이 활용되었으며, 조사원들은 개별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내에서 노인을 직접 접촉하고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조사원이 문장을 읽어주고 이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원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장 설명 조건을 사전에 훈련시켰다. 조사 기간은 2007년 2월 4일부터 16일까지였으며, 모두 72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하는 13부를 제외한 712부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 질문과 여가 실태에 관련된 질문 및 여가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 그리고 여가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의 여가 만족도는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가운데 일부를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김영재(2004)가 Breard와 Ragheb가 개발한 여가만족도 척도를 근거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성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것이다. 본래의 척도는 모두 24개 문항으로, 사회적 만족 6문항, 정서적 만족 5문항, 신체적 만족 5문항, 환경적 만족 4문항, 교육적 만족 4문항 등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노인임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조사

등을 통해 해당 척도의 질문 가운데 노인의 전반적인 여가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7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825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과 도서지역 노인 간 여가활동실태와 여가만족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SPSS 14.0)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가 농촌 노인 및 도서지역 노인 간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두 집단 간 비교에 무리가 없는지 즉,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및 F 검증, χ^2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여가 장애요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경제에 대한 인식 등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농촌에 비해 도서지역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다. 아울러 도서지역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농촌	도서지역	X ²	비고
성별	남	131(39.1)	181(48.0)	5.715*	-
	여	204(60.9)	196(52.0)		
연령	60대	114(34.1)	208(55.2)	31.643**	mean(SD) 71.26(6.63)
	70대 이상	220(65.9)	169(44.8)		
종교	기독교	86(25.7)	60(16.0)	43.840**	-
	천주교	32(9.6)	3(.8)		
	불교	70(20.)	101(26.9)		
	기타	11(3.3)	13(3.5)		
	종교없음	136(40.6)	198(52.8)		
교육수준	무학	148(44.8)	110(30.1)	22.518**	mean(SD) 4.29(4.04)
	초등학교	132(40.0)	168(45.9)		
	중학교	29(8.8)	55(15.0)		
	고등학교	18(5.5)	20(5.5)		
	대학교 이상	3(9)	13(3.6)		
거주하는 가족	혼자	96(24.3)	75(16.7)	-	-
	배우자와 함께	192(48.6)	276(61.3)		
	아들내외와 함께	36(9.1)	26(5.8)		
	딸내외와 함께	1(3)	0(0)		
	미혼자녀와 함께	20(5.1)	22(4.9)		
	손자녀와 함께	26(6.6)	30(6.7)		
기타	24(6.1)	21(4.7)			
월평균 지출	50만원 미만	198(61.5)	223(60.1)	.197	mean(SD) 48.47(55.13)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83(25.8)	97(26.1)		
	100만원 이상	41(12.7)	51(13.7)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풍족한 편	8(2.4)	7(1.9)	22.260**	-
	걱정 없는 편	153(45.9)	148(39.5)		
	어려운 편	146(43.8)	144(38.4)		
	매우 어려운 편	26(7.8)	76(20.3)		
경제활동 참여여부	참여	167(49.9)	208(55.3)	2.125	-
	미참여	168(50.1)	168(44.7)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무학 즉,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낮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즉, 가족 구성이나 실제 경제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월평균 지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교가 아닌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비교이므로, 전체 농촌과 도서지역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다만 비교가 되는 두 집단 간 동질성의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동질성이 명확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연구가 여가 활동 실태 및 이의 장애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을 전제로 비교를 수행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비교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다중응답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농촌의 경우 TV시청(23.5%)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12.4%), 운동(11.1%), 노래(9.8%), 화투(9.4%), 종교활동(6.3%), 낮잠(5.3%), 산책(4.8%), 여행(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의 경우 역시 TV시청(31.8%)이 가장 많았고, 기타(14.7%), 화투(7.8%), 낮잠(7.8%), 운동(7.6%), 산책(6.7%), 종교활동(4.5%), 신문읽기(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촌과 도서지역 모두 TV시청이 여가활동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었으며, 화투, 낮잠 등의 비율이 매우 높아 주로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신문, 잡지, 책 등 독서)은 참여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지역사회에서 집단 결속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체 여가활동(농악, 노래, 춤, 자원봉사 등)의 참여비율이나 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강좌, 사회교육 등)의 참여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현재 농촌과 도서지역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여가활동의 내용 전반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가활동 내용

구분	농촌	도서지역	비고
낮잠	52(5.3)	63(7.8)	
TV 시청	232(23.5)	256(31.8)	
라디오 청취	8(8)	6(7)	
신문 읽기	31(3.1)	33(4.1)	
잡지 읽기	3(3)	2(2)	
책 읽기	11(1.1)	8(1.0)	
장기, 바둑	21(2.1)	30(3.7)	
화투	93(9.4)	63(7.8)	
산책	47(4.8)	54(6.7)	
운동	109(11.1)	61(7.6)	다중응답 분석
춤	16(1.6)	15(1.9)	
노래	97(9.8)	14(1.7)	
농악	2(2)	7(9)	
수공예, 그림, 공작	4(4)	1(1)	
계모임	15(1.5)	16(2.0)	
강좌교육	13(1.3)	2(2)	
사회교육	7(7)	0(0)	
여행(계절)	37(3.8)	13(1.6)	
종교활동	62(6.3)	36(4.5)	
자원봉사	4(4)	6(7)	
기타	122(12.4)	118(14.7)	

여가활동 내용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각 여가활동별 빈도를 통해 농촌과 도서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여가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시 각 셀에서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단정적 결과해석은 곤란하지만, 화투의 경우 농촌이 도서지역에 비해 보다 자주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과 춤, 노래 등은 도서지역이 농촌에 비해 보다 자주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과 도서지역 간 여가활동의 종류와 빈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여가활동 빈도

구분	농촌				도시지역				χ^2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2회 이하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2회 이하	
낮잠	47(92.2)	3(5.9)	1(2.0)	0(0)	48(76.2)	12(19.0)	1(1.6)	2(3.2)	6.216
TV 시청	220(98.7)	3(1.3)	0(0)	0(0)	242(94.9)	8(3.1)	2(0.8)	3(1.2)	6.206
라디오 청취	8(100)	0(0)	0(0)	0(0)	5(83.3)	1(16.7)	0(0)	0(0)	1.436
신문 읽기	25(80.6)	4(12.9)	1(3.2)	1(3.2)	29(87.9)	3(9.1)	0(0)	1(3.0)	1.378
잡지 읽기	1(33.3)	0(0)	1(33.3)	1(33.3)	0(0)	2(100)	0(0)	0(0)	5.000
책 읽기	8(72.7)	2(18.2)	0(0)	1(9.1)	5(62.5)	3(37.5)	0(0)	0(0)	1.455
장기, 바둑	8(40.0)	6(30.0)	3(15.0)	3(15.0)	21(70.0)	5(16.7)	4(13.3)	0(0)	7.356
화투	78(85.7)	11(12.1)	1(1.1)	1(1.1)	40(63.5)	14(22.2)	5(7.9)	4(6.3)	12.382**
산책	37(80.4)	7(15.2)	2(4.3)	0(0)	35(64.8)	14(25.9)	4(7.4)	1(1.9)	3.438
운동	41(37.6)	8(7.3)	57(52.3)	3(2.8)	37(62.7)	13(22.0)	4(6.8)	5(8.5)	36.277**
춤	0(0)	1(6.7)	13(86.7)	1(6.7)	10(71.4)	3(21.4)	0(0)	1(7.1)	23.994**
노래	19(20.2)	4(4.3)	67(71.3)	4(4.3)	11(78.6)	1(7.1)	1(7.1)	1(7.1)	23.339**
농악	0(0)	0(0)	1(50.0)	1(50.0)	5(83.3)	0(0)	0(0)	1(16.7)	5.333
수공예, 그림 등	4(100.0)	0(0)	0(0)	0(0)	0(0)	1(100.0)	0(0)	0(0)	-
계모임	1(6.7)	1(6.7)	1(6.7)	12(80.0)	0(0)	0(0)	0(0)	15(100.0)	-
강좌교육	0(0)	2(15.4)	10(76.9)	1(7.7)	0(0)	0(0)	0(0)	2(100.0)	9.231**
사회교육	1(14.3)	1(14.3)	4(57.1)	1(14.3)	1(14.3)	1(14.3)	4(57.1)	1(14.3)	-
여행(계절)	0(0)	0(0)	0(0)	37(100.0)	0(0)	0(0)	0(0)	12(100.0)	-
종교활동	10(16.9)	20(33.9)	21(35.6)	8(13.6)	4(11.1)	13(36.1)	11(30.6)	8(22.2)	1.713
자원봉사	0(0)	1(25.0)	1(25.0)	2(50.0)	0(0)	0(0)	5(83.3)	1(16.7)	3.750
기타	103(88.0)	7(6.0)	7(6.0)	0(0)	78(66.7)	23(19.7)	9(7.7)	7(6.0)	19.236**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월평균 52.01시간을 투입하는 반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월 평균 60.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시간이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라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연중 항시 농사가 진행되는 반면,

도서지역에서는 어패종 등 일의 성격에 따라 연중 일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에 비해 여유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가활동 시간을 생산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시간은 15.22시간인데 비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시간은 그 2배가 넘는 31.40시간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생산적 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월평균 여가활동 시간

구분	농촌	도서지역	t
전체여가활동	52.01(43.15)	60.80(45.45)	-2.566**
생산적여가활동 ³⁾	15.22(15.51)	31.40(30.88)	-5.556**

<표 5> 월평균 여가비용

구분	농촌	도서지역	X2
1만원 미만	306(99.7)	155(44.5)	237.87**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	105(30.2)	
3만원 이상	1(3)	88(25.3)	
mean(SD)	1.98(34.24)	2.78(6.51)	

한편, 이러한 경향은 월 평균 여가비용의 차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표 5>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평균 여가비용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99.7%인데 비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평균 여가비용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44.5%,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30.3%, 그리고 3만원 이상도 25.3% 등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

3) 생산적 여가활동이란, 조사표에 포함된 21개 여가활동 가운데 단순한 낮잠이나 TV시청 등과 화투 등의 여가활동을 제외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읽기, 산책, 운동, 춤, 노래, 농악, 수공예/그림/공작, 강좌교육, 사회교육, 자원봉사 등의 10가지 여가활동을 의미함.

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여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나 모섬 등으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비교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즉,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각각의 항목으로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간부족, 돈부족, 교통불편, 정보부족, 시설부족, 장비부족 및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음 등의 항목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이해부족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려움과는 달리 농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라는 지역적 특정 상 육지인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락을 형성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여가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또한 이런 조건을 갖춘 곳, 즉 큰 규모의 섬이나 육지에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도출될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경제적 문제나 시간의 문제, 정보부족의 문제,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는 문제 등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여가활동 장애요인

구분	농촌	도서지역	t
시간이 부족하다	1.99(.84)	2.18(1.08)	-2.585**
돈이 부족하다	2.79(.73)	2.93(.84)	-2.351*
가족의 이해가 부족하다	1.79(.52)	1.69(.62)	2.331*
집안일이 많다	2.30(.71)	2.35(.87)	-.887
흥미가 없다	2.26(.83)	2.18(.87)	1.185
건강하지 못하다	2.48(.76)	2.50(1.02)	-.376
함께할 사람이 없다	2.03(.69)	2.00(.80)	.482
교통이 불편하다	2.29(.76)	2.46(.92)	-2.709**
정보가 부족하다	2.31(.62)	2.61(.82)	-5.519**
시설이 부족하다	2.48(.69)	3.00(.82)	-9.049**
장비가 부족하다	2.67(.69)	3.09(.82)	-7.322**
할만한 여가활동이 없다	2.67(.71)	3.09(.75)	-7.096**

4)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만족도 비교

가. 여가만족도

농촌과 도서지역의 조사대상자별 여가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농촌의 경우 26.91점인데 비해 도서지역은 24.31점으로 여가 만족도가 도서지역에 비해 농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여가 시간, 여가 지출 등에 대한 분석에서 도서지역이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노인들이 시간과 비용은 보다 많이 지출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은 특징을 가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농촌과 도서지역 모두에 대해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 및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보급해야 하겠지만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여가활동 만족도

구분		mean(SD)	t	df	Sig.	비고
여가활동 만족도	농촌	26.91(4.41)	7.117	702.181	.000	
	도시지역	24.31(5.28)				

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 연령, 경제수준, 건강상태, 지역 등과 같이 노인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여가 장애요인들이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8.1%에 불과하였으며, 2단계에서 여가 장애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 25.8%로 유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6%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가 관찰되었다. 통제요인 가운데 지역은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여가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가 장애요인 가운데서는 시간, 돈, 건강, 정보의 부족과 더불어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촌과 도시지역 노인의 여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농촌과 도시지역의 노동패턴에 적합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⁴⁾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성	-.283	-.028	-.744	-.341	-.034	-.937
연령	.039	.051	1.296	.015	.020	.499
경제수준	.011	.124	3.272**	.005	.053	1.505
건강상태	.036	.043	.893	.045	.054	1.214
지역	2.157	.214	4.235**	1.048	.104	2.173*
시간 부족				-.502	-.098	-2.373*
돈 부족				-.308	-.060	-1.691
가족 이해 부족				-.509	-.059	-1.663
집안일				.171	.027	.676
흥미 없음				-.012	-.002	-.056
건강 문제				-.665	-.119	-3.182**
함께할 사람 없음				-.460	-.068	-1.815
교통 불편				-.136	-.023	-.597
정보 부족				-.720	-.106	-2.667**
시설 부족				-.278	-.044	-.798
장비 부족				.353	.055	1.060
할만한 여가활동 없음				-2.037	-.306	-7.391**
step 1, R ² = .081 F = 11.668** step 2, R ² = .258 F = 13.227** $\Delta R^2 = .176**$						

5.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욕구 비교

농도서지역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농촌과 도서지역 모두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각각 49.0%와 43.0%로 가장 많았으며, 오락 프로그램이 각각 23.6%와 19.9%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13.1%, 취미활동이 7.2% 등의 순이었던데 비해, 도서지역의 경우 취미활동이 19.6%, 교양교육이 8.2% 등의 순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각각은 여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 욕구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4) 성과 지역은 불연속변수이므로 가변인 투입, 성 1=남, 지역 1=농촌

아울러 <표 10>에서 제시된 것처럼, 농촌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필요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여가 장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안마기구(35.3%)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운동기구(31.0%), 기타(15.8%), 노래방기기(8.5%), 컴퓨터와 인터넷(5.8%), TV 및 라디오(2.7%) 등의 순이었던데 비해, 도서지역의 경우는 운동기구(37.9%)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안마기구(35.3%), 노래방기기(12.2%), 기타(8.2%), 풍물도구와 TV 및 라디오, 컴퓨터와 인터넷(각각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장 필요한 여가프로그램

구분	농촌	도서지역	X2
건강관련	164(49.0)	162(43.0)	28.100**
교양교육	44(13.1)	31(8.2)	
취미활동	24(7.2)	74(19.6)	
오락	79(23.6)	75(19.9)	
자원봉사활동	3(9)	7(1.9)	
기타	21(6.3)	28(7.4)	

<표 10> 가장 필요한 여가장비

구분	농촌	도서지역	X2
운동기구	102(31.0)	143(37.9)	21.362**
안마기구	116(35.3)	133(35.3)	
노래방기기	28(8.5)	46(12.2)	
풍물도구	3(9)	8(2.1)	
TV 및 비디오	9(2.7)	8(2.1)	
컴퓨터 및 인터넷	19(5.8)	8(2.1)	
기타	52(15.8)	31(8.2)	

한편, 여가를 즐기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지 살펴본 결과, <표 11>에 서와 같이 농촌과 도서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서지역 모두 마을노인정(경로당)이 각각 73.4%와 60.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마을회관 11.9%,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3.3%, 읍면복지회관 1.8%, 종교기관 1.5% 등의 순이었던데 비해 도서지역의

경우 마을회관 12.5%, 읍면복지회관 10.9%,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5.0%, 종교기관 3.2% 등의 순이었다.

<표 11> 여가를 즐기고 싶은 장소

구분	농촌	도서지역	X2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11(3.3)	19(5.0)	
마을노인정	246(73.4)	228(60.5)	
마을회관	40(11.9)	47(12.5)	
읍면복지회관	6(1.8)	41(10.9)	31.759**
보건소(지소)	1(.3)	4(1.1)	
종교기관	5(1.5)	12(3.2)	
기타	26(7.8)	26(6.9)	

6.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언

이 연구에서 농촌과 도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지역비교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M郡과 도서지역지역인 W郡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71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여가활동 내용으로,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 모두 TV시청이 가장 주요한 여가활동이며, 화투, 낮잠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화투는 농촌에서, 운동과 춤은 도서지역에서 보다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여가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하였다. 이처럼 정적인 여가활동은 동료 혹은 세대와 유기적 연대를 맺으며 사회적 지지체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한정시켜 삶의 무력감을 재생산하고 소외감을 강화(나향진, 2003: 48-9) 할 수 있어 주의 를 요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서지역 거주 조사대상노인이 농촌거주 조사대상노인에 비해 많은 여가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여가는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서, 여가시간은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농촌의 경우는 농업의 특성 상 일이 농한기를 제외한 시기 동안 매일 진행되는 데 반해 도서지역의 경우는 어패류나 해초류의 종류에 따라 일년 중 일정 시기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노인에게 여유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사결과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도 많았다.

셋째, 농촌지역 조사대상노인에 비해 도서지역지역 조사대상노인이 더 많은 돈을 여가생활에 지출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농촌거주 조사대상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면서도 여가관련 소비는 더 많이 하고 있는 불합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아마도 도서지역의 경우 여가시설이 농촌에 비해 적고, 따라서 여가활동을 위해서 육지나 모섬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경비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여가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여가지출 비용의 차이는 농촌과 도서지역의 여가의 질과 양의 차이로 이해되기 보다는 같은 여가활동 수준에서도 도서지역의 경우가 더 많은 개인적 투입을 요구받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지역거주 조사대상노인이 농촌거주 조사대상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체로 시간부족, 돈부족, 교통불편, 정보부족, 시설부족 및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음의 순으로 장애요인이 나타났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도서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촌 조사대상노인에 비해 여가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도서지역 조사대상노인들이 여전히 시간부족을 여가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여가만족도는 도서지역에 비해 농촌에서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 돈, 건강, 정보 부족과 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농촌보다 여가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도서지역의 노인들의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국 노인의 여가만족은 여가에 대한 장애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장애요소가 제거되면 여가에 대한 만족이 이보다 증가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여섯째, 농촌과 도서지역 조사대상노인 모두 건강관련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농촌의 경우 안마기, 도서지역의 경우는 운동기구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여가의 장소로는 농·도서지역 모두 마을노인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농어촌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건강유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노인단독가구세대가 증가하며, 나아가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건강한 연장된 노후를 지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장비도 안마기나 운동기구처럼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처럼 노인여가시설이 없는 농어촌에서는 여가활동의 장소로 마을노인정을 가장 많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마을노인정은 어느 마을이나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래의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마을노인정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 도입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자들은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증진과 이를 토대로 한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도서, 도시의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과 무관하게 TV시청을 주된 여가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소모적 여가가 아닌 교육적 여가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 농어촌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이 건강프로그램인 만큼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시급하다. 선행연구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체육학 관련 분야에서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감, 행복감 등을 증진하고 우울과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있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적인 여가프로그램이 의료자원과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여가의 유형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지방 대학의 관련 학과(체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계)에서는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생리 특성과 농어촌 육체노동의 성격을 고려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훈련된 여가지도자를 배출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도서지역 거주 노인들이 농촌 거주 노인에 비해 투입하는 여가비용은 많으면서도 여가활동 참여의 장애요인도 많고, 나아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거주 노인은 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지역 거주 노인들의 여가실태가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서도 여가비용은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불합리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서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의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접근성문제로 인한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의 문제들은 마을로 찾아가는 여가지원 서비스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제안한 여가지도자의 적극적 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도서지역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 공공전달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도서지역 노인들이 육지로 와서 여가활동을 한다면 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제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여가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신안군의 경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⁵⁾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완도군은 19위, 진도군은 15위(박혜자, 2007: 22)를 점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는 재정활동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생산 및 보급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경우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서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는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가적 대국민 여가정책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도서지역과 같은 여가불평등 지역에 대한 긍정적 차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시도된 농촌과 도서지역의 노인 여가실태 및 욕구 비교의 결과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단순히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5)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농어촌 지역을 통합한 획일적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농촌과 도서지역의 특징을 분별하는데 소극적이어서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제언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정책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의 지역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조사대상자의 삶의 터전이 그대로 연구주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곽효문. 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27-49.
- 구혜영. 2004.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249-281.
- 권중돈. 2007.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귀봉·박주영. 2000.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논집』 19: 3-39.
- 김기봉·문제선. 2003.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0: 117-138.
- 김동배. 2000. “노인 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25: 137-160.
- 김성연·박미서.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양례. 2005.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4(6): 183-192.

- 김영란. 2006.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도서지역 사회복지의 실태와 지역사회복지학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 1-23.
- 김영란·노채영·박분희·박정희·박진영·이수애·전호문. 2005. 『도서지역 여성의 삶』. 서울: 양서원.
- 김영재. 2004. “한국형 여가만족도척도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3(1): 291-299.
- 김준. 2007. “도서지역의 이해.” 권구영·김영란·김준·박민서·박분희·양철호·이수애·이주희·조원탁. 『농도서지역사회문제론』. 서울: 양서원. 66-91.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김진철. 2007. “10년뒤 농촌인구 60%는 노인.” 한겨레신문 2007.12.31. 13면.
- 김형수. 2006. “노화 및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조망.”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pp. 53-85.
- 김희년. 2005. “김해지역 노인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20(1): 41-68.
- 김희년·정미숙. 2004.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263-285.
- 나향진. 2003. “서울지역 노인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35-54.
- 마석렬. 2001. “노인의 스포츠참여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51-64.
- 모선희. 2004. “고령화사회와 노인여가활동.”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2004년 노인복지사 양성교재. 45-66.

- _____. 2006. “노인에 대한 이해.”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14-51.
- 민경훈·정훈교·서연태. 2001. “노인의 스포츠참여와 여가참여형태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2(3): 67-82.
-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 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 정책 연구』. 통권 5호.
- 박혜자. 2007.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격차 해소방안.”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미출간 강연자료.
- 서병숙. 1990.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 1994. 『노인연구』 (제3판). 서울: 교문사.
- 양철호. 2007. “농도서지역의 개념과 인구특성.” 권구영·김영란·김준·박민서·박분희·양철호·이수애·이주희·조원탁. 『농도서지역사회문제론』. 서울: 양서원. 15-40.
- 원영희. 2000. “노인과 여가.” 한국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218-235.
- 유영주·김순기. 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봄호: 73-95.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표. 1994. 『노인의 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덕. 2005. “노인의 여가스포츠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6: 161-194.
- 임인수. 2001. “노인의 스포츠참여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2): 385-398.

- 임춘식. 1997.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방안』. 제8회 노인복지학술대회 자료집.
- 장인협·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성남. 2004. “농촌지역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에 따른 실천사례와 발전방안-장성군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농촌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56-84.
- 정경희. 2005.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5.3: 49-65.
- 조명희. 1998. “충북지역 노인의 여가생활분석-노인단독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7(1): 1-8.
- 조완규. 199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최성재·장인협. 2006. 『노인복지학』 제2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허준수. 2006. “노인여가.” 한국노인복지학회 편. 『노인복지학 사전』. 서울: 학현사. 135-136.
- 홍성희. 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 히구마 다케요시. 2007. “한·일 농도서지역 고령자의식비교-10년간의 비교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목포대학교 건강복지서비스전문인력양성사업단. 『농도서지역지역 노인여가 실태 및 발전방안』. 2007 농도서지역지역 여가복지포럼자료집. 67-73.

김영란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농어촌복지

에 관심을 두고, “농촌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2008)”, “사회투자국가 전략과 한국 농촌복지의 현실(2009)” 등에 대한 연구와 『도서지역 여성의 삶, 2004』 (공저) 등을 저술하였다.

이수애는 동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립목포대학교 기획처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보건복지 인력 인프라구축방안(200*)”,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으며, 『농어촌사회문제론, 2007』 (공저) 등을 저술하였다.

권구영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실천전공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연구원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국립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 간 관계에 관한 연구(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평가(2007)”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과학적조사와 보고서 작성, 2010』 (공저)을 저술하였다.

[2009. 7. 31. 접수; 2010. 5. 12. 수정; 2010. 6. 5. 채택]